

깨달았다는 생각마저 버려라



184 백천간두 진일보

‘척(尺)’은 길이나 높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우리말로 ‘자(尺)’라고 하는데, 1척이 대략 30.3cm이므로 100척이면 약 30m가 됩니다.

‘백척(百尺)’이나 ‘백화(百花)’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 사람들은 많은 것을 표현할 때는 ‘백(百)’이라는 숫자를 주로 씁니다. 예컨대 중병에 걸

려’는 뜻인데 그 역시 금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의 목표와 관점은 어떤 기준에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무유정법 명 아녹다라삼박삼보리(無有定法 名 阿耨多羅三藐三菩提)’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강경>을 읽어 본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 뜻은 “고정된 법(진리)은 없다. 그것을 이름 하여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한다”는 뜻인데,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의 목표는 깨달음이지만 깨달고 나서는 그 세계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안주하면 그 역시 집착이요, 공(空)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은 이상향은 공, 중도, 불이(不二)입니다. 공, 중도, 불이는 무집착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아름다운 꽃밭을 본 다음 그 꽃밭에 있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국 애착, 집착이 됩니다. 자전거가 계속 굴러야 넘어지지 않듯이 깨달음도 그 세계에 안주하면

깨달음, ‘백척간두’ ‘최고봉’으로 비유 부처세계 머무르지 말고 중생 교화해야

려 갖가지 약을 써도 통하지 않을 때는 ‘백약(百藥)이 무효(無效)’라고 합니다. 이때 ‘백약(百藥)’은 실제 백 가지 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약’을 뜻합니다. ‘백화(百花)가 만발(滿發)했다’라는 말도 ‘갖가지 꽃이 다 피었다’는 뜻이지 ‘백 가지 꽃이 피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백척’은 ‘아주 높음’을 상징합니다.

‘간두(竿頭)’는 빨랫줄을 높이 올리는 긴 막대기를 말합니다. 요즘은 접이용 빨래건조대를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빨래를 빨랫줄에 널어서 말렸습다. 이때 빨랫줄이 축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빨랫줄 한 가운데를 높이 받쳐 주는 막대기가 바로 ‘간두’입니다. ‘진일보(進一步)’는 ‘한 걸음 더 나아가다’는 뜻입니다.

풀이하면 ‘백척간두 진일보(百尺竿頭 進一步)’란 ‘백 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뜻인데, 실제 백 척 장대 끝에서 한 발자국 더 전진한다면 그날 올라간 사람들은 아마 모두 제삿날이 똑같은 날일 것입니다.

백 척이나 되는 높은 곳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선어에서 ‘간두(竿頭, 장대)’나 ‘봉우리(峰)’ 등은 최고봉을 뜻합니다. ‘고봉정상(高峰頂上, 높은 봉우리 정상)’이나 ‘독좌대웅봉(獨坐大雄峰, 홀로 대웅봉에 앉다)’이라는 선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선에서 최고봉은 ‘깨달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백척간두(百尺竿頭)’ 또는 ‘고봉(高峰)’이라고 합니다. 고봉정상에 섰다면 그는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 ‘깨달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미 백척간두에 올라섰다면 그것은 바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깨달은 것으로 더 전진할 것이 없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말(進一步)은 무슨 뜻일까? 이 말은 ‘더 공부하라’ ‘더 수행하

라’ 역시 집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가 의미하는 바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깨달았다는 그 생각마저도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는 한 그는 아직 될 깨달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았다는 생각마저 버릴 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 깨달음의 세계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아직 미완의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훌륭함이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은 자기가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깨달은 자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직 될 깨달은 것입니다.

학자가 어느 정도 학문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만족한다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 만족하면 그 자리가 무덤이 됩니다. 수행자로서 자신의 경지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진정한 깨달음을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백척간두 진일보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다면,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부처의 세계에 머물지 말고 다시 중생의 세계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을 제도해야 합니다. 최고 목표인 깨달음을 성취하여 부처가 되었다면, 중생 속으로 내려와서 어려움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교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처다운 삶입니다.

부처로서 부처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라는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중생에 불과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개인의 가치관에 머문다면 그의 깨달음은 무의미합니다. 사회적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분별심 내지 않아 중생 근기에 맞는 설법

●사자빈신 비구니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힌 다음 일을 시작하곤 한다. 그렇듯이 부처님께서는 감로법문을 열 때마다 삼매(三昧)에 들곤 하셨다. 부처님께서 삼매에 드시면 법문을 듣는 제자들은 저절로 심신의 안정을 얻고 마음의 문을 열어 설법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에는 ‘무량외처삼매(無量處三昧)’에, <화엄경> ‘입법계품’을 설하시기 전에는 ‘사자빈신삼매(獅子頻呻三昧)’에 드셨다고 한다. 이 중 사자빈신삼매라는 뜻은 ‘사자가 기지개를 켜는 삼매’라는 뜻이다.

산하대지(山河大地)와 하나 되어 진리자체로 살아가시는 부처님께서 백수의 왕처럼 당당하고 결립 없는 삼매를 누리신다는 의미다.

‘입법계품’에 등장하는 사자빈신 비구니는 사자빈신삼매에 든 당당한 모습으로 53선지식을 찾아 구법여행 중인 선재동자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선지식으로 등장한다.

선재동자는 수나(輸那)라고 하는 나라의 가릉가(阿陵迦) 숲의 성에 이르러 사자빈신 비구니를 찾아가다. 그녀가 승광왕(勝光王)이 보시한 일광(日光)동산에서 법을 설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동산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 동산에서 선재동자는 그녀가 모든 보배나무

아래 놓인 사자좌에 두루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날날 사자좌에 모인 대중도 감지 않고 말하는 법문도 각각 달랐다. 그녀는 그들의 욕망과 이해 정도가 서로 다른 차이에 따라서 법을 설하여 아녹다라삼박삼보리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계를 보고 또 불가사의한 법문을 듣고 한없는 존경심을 가지게 된 선재동자가 합장하고 서서 보살도를 뒤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청하자, 그녀는 이렇게 설했다.

“선남자여, 나는 온갖 지혜를 성취하는 해탈을 얻었다. 이 지혜의 광명은 잠깐 동안에 삼세(三世)

의 성품을 깨달은 까닭이다. 한 생각에 모든 법을 두루 알면서도 모든 법이라는 분별을 내지 않으니 법이 환술과 같음을 아는 까닭이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온갖 지혜를 성취하는 해탈을 알 뿐이다.”

사자빈신 비구니가 다양한 중생들의 욕망과 이해력에도 불구하고 각기 알맞은 법을 설하여 아녹다라삼박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일체의 분별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분별심이 없어야 한다(至道無難 唯難捨浬)”고 한 3조 승찬 대사의 <신심명> 법문과 더불어 있다. 선수행의 처음과 끝이 시비·분별하고 취사·선택하고 조작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데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려면 분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하지만, 대상과 일을 뚜렷이 알아차리되 거기에 집착하거나 애증(愛憎)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수행의 요체다. 즉 승찬 대사가 설한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마음만 없으면 무상대도(無上大道)는 특트여 명백하다(眞莫浬愛 洞然明白)”는 법문이 이것이다.

선수행의 핵심은 <신심명>의 첫구절 ‘지도무란 유행간택’에 있음을 깊이 믿고 받아들이어야 한다. 중생과 부처,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 차안과 피안 등등 일체의 대립·고정관념을 단박에 내려놓을 수 있다면 화두니, 목초니, 우뱀사나니 하는 말이 어디에 붙을 것인가.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참선집중수행 ‘참사람의 향기’=해남 미황사는 9월 20~27일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참선집중수행 ‘참사람의 향기’를 진행한다. 법인 스님(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금강 스님(미황사 주지) 등이 교수사로 나선다. 참선, 묵언, 오후불식, 수행문답, 수행체계 법문, 다도 등으로 수행을 하게 된다. (061)533-3521

●구절초 축제 템플스테이=공주 영평사가 9~10월 구절초 축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9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 주말 1박2일 구절초 축제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041)857-1854

●대관음사 53선지식 초청법회=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계속해 오고 있는 53선지식 초청법회의 9월 법회가 17일, 29일 오전 11시 열린다. 17일에는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이, 29일에는 탤런트 전원주 씨가 법석에 오른다. (053)474-8228

●월정사 희망의 만동 밝히기=평창 월정사가 10월 10~12일 제5회 오대산불교문화축전을 앞두고 ‘희망의 만동밝히기’ 행사를 연다. 8월 25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한 ‘희망의 만동’은 10월 10일까지 접수가 이어진다. (033)332-6661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진화주제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21.com

간이 있습니다.

건강해야 장수할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종당과 비질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다린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선)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선)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21세기 불자 자가(自家)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이 쓰신 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들에게 선을 보입니다.

이 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으므로 불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입니다.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1949년 전남 순천출생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법주부 법치여명 지원봉사위원 역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총무원장, 중앙총회의원 역
 ·원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원효종불교대학 객원교수
 ·원어래암 주지

·[논문]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원시불교의 선정사상에 대한 연구
 ·Buddh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공사상에 대한 고찰
 ·특사문회의 정학 범인에 관한 고찰 등

·[저서]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공저 국역성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신간

21C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행수기
 제 7장 - 불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택배발송 (발송비 무료) ◆정가 30,000원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계좌번호 : 농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株)天星建設

석 · 납골당 전문

석 · 납골당 조성공사
 석 · 굴법당 조성공사 전문
 석 · 축대 및 보수공사
 석 · 저장실, 보관실(과일)
 석 · 까다로운 석 · 길공사
 석 파는 공사 전문 업체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삼성1구 260-1
 전 화 041)331-6863~5
 팩 스 041)331-6862
 핸드폰 010-4035-3354

풍기 정품 홍삼

풍기 정품 홍삼액 골드,액기스, 레드파워(산삼배양근추출액 50ml×16병) 판매

풍기인삼은 아래서 좋습니다

- 약탕기에 끓여 재탕, 삼탕을 해도 물렁하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 같은 분량을 달어도 다른 인삼보다 농도가 훨씬 짙습니다.
- 인삼을 날여둔 방문만 열어도 향기가 짙게 납니다.
- 육질이 탄탄하여 중량이 무겁고 약효가 뛰어납니다.

· 판매처 054)634-3429
 · 휴대폰 011-9373-3778
 입금계좌 : 우체국 703884-02-048103(예금주: 박영애)

홍삼액골드 100ml×60포 (한달분)
 유효사포닌(32종)의 성분들이 살아있는 최상의 건강식품입니다

농축액 (진액) 500g

삼을 직접재배, 가공하여 만들어진 양질의 홍삼만을 선별!! 스님,불자님께는 특혜드림